

# 대한 양계협회

소식

## 계분처리 규제대상 1만수(면적 1,000㎡) 이상 사육농가로 환원토록 건의

본회는 지난 4월12일 입법예고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해 본회 의견을 환경처에 제출하였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축산폐수 배출시설 신고대상 규모를 “면적 350㎡ 이상 또는 3,000수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종전과 같이 “면적 1,000㎡ 이상 또는 10,000수 이상” 사육농가를 규제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양계업의 경우 1만수까지는 부업농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1만수 이하를 사육하는 농가는 정상적인 계사를 설치하지 않고 간이시설을 이용하여 부업적으로 수급조절이나 가격변동에 구애없이 경종농업에 사용하기 위한 퇴비의 생산수단 또는 가족의 건강식품 자급을 위하여 사육하고 있는 실정이며, 생산된 계분은 전량 퇴비화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한 신고대상으로 규제한다면 시행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행정당국과 시비만 야기되는 등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되

로 입법예고안중 닭에 관한 규정을 절대 반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과거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된대로 닭사육시설 1,000㎡(1만수 사육규모) 이상 소유자만 신고대상으로 조치하여 시설규모 1,000㎡ 이하의 농가는 신고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닭은 오줌을 누지않고 계분의 배설도 소량이기 때문에 1만수 이하에서 생산되는 계분은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특히 대부분 평사에서 사육하기 때문에 별도의 계분 건조보관시설이 필요없으므로 신고대상으로 하여 규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닭은 평사에 사육하는 병아리를 입추할 때부터 계사바닥에 깔짚을 깔고 사육하며 사육도중 깔짚이 지저분해지면 깔짚을 보충해 주면서 청결하게 사육한 후 사육기간이 만료되면 닭을 처분한 후 일시에 계분을 제거함과 동시 과수원 등 농경지에 퇴비로 직접 활용하기 때문에 수질 오염원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별도 축산폐수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우리 농촌의 경제적 여건 및 토지여건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1만수 이하의 부업 양계농가에서는 계사 시설개선이란 생각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으며 농가소득을 추구하기 위해서만 영위하는 업도 아니며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간이 사육시설이 무허가로서 계사 자체를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딱한 처지에 있는 농가가 별도의 축산폐수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전연 불가능한 실정으므로 만약 1만수 이하의 부업농가를 신고대상으로 하여 규제한다면 우리나라의 부업 양계농가는 전부 닭 사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커다란 민원이 야기되어 사회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

정부의 수입개방 시책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업규모를 3만수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차제에 현재 1만수 이상(시설규모 1,000㎡ 이상) 사육농가도 시설확대 및 개선(계분건

조 발효시설을 포함한 자동화 시설과 완전계사화)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서 정부의 지원하에 점진적으로 계분 처리대책을 강구 시행중에 있으므로 법의 시행기간을 2~3년간 연장하여 주고 단속 처벌보다는 지도계몽으로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특히 1만수 이상의 신고대상 농가 중 평사에서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으로 규제는 하되 사육과 계분처리 과정을 고려하여 별도 축산 폐수시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조치하여 주도록 건의하였다.

### 양축시설 상대농지 4,500㎡, 절대농지 3,000㎡ 대체농지조성비 전액 면제, 초과시 50% 감면

본회가 지난해 9월26일 농림수산부,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각 정당 등에 제출한 축산시설용 농지전용시 대체농지조성비 면제 건의에 대한 농림수산부의 회신이 있었다.

농림수산부의 회신은 대체농지조성비 감면에 대하여 양축시설을 위한 농지전용시 농지조성비는 농가의 경우 신고면적을 포함하여 상대농지 4,500㎡, 절대농지 3,000㎡ 이하는 전액 면제하고, 이 면적을 초과할시 50% 감면하고 있으므로 양계 3만수, 양돈 1천두, 한·육우 100두 내외를 전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축농가의 겨우 3,000㎡ 내외 소요시설 부지로 농지만을 사용하더라도 농지조성비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양축농가의 축산오폐수처리시설도 농업용시설로 인정토록 기조치하여 농지전용신고 및 농지조성비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양축시설을 위한 농지전용신고의 범위를 현행 1,500㎡에서 3,300㎡까지 확대하

기 위하여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어 동법령이 개정되면 농지조성비 면제범위가 상대농지 6,300㎡, 절대농지 4,800㎡까지 대폭 확대되어 소규모 기업적인 양축농가(양계의 경우 5만수 내외)까지도 농지조성비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에 대하여는 지난 88년 11월 제1차 양성화 조치를 통하여 동년 10월말 현재 불법전용 실태를 조사하여 농사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농지를 전용한 경우는 관계법에 따라 양성화되도록 조치하였다.

지난 90년 10월 제2차 양성화 조치를 통하여 실태조사시 누락된 사안에 대해서도 농지전용 이용규제가 완화된 점을 감안, 농가주택이나 양축시설 등 농어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용지 및 3,000㎡ 이하의 기타 시설용지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저촉이 없는 범위내에서 모두 양성화되도록 조치하였다.

### 생산자 중심의 육계계열화사업 발전 방향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본회는 지난 4월26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육계산업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육계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생산자 중심의 육계계열화 사업 발전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150여명의 육계생산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주)대경 정용길 사장이 “육계계열화 사업 추진사례” 발표와 건국대학교 김정주 교수가 “생산자 중심의 육계계열화 사업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정용길 사장은 계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생산자들이 단합하여 극복한 결과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였다. 또 생산자 주도 계열주체는 기업주체 보다 kg당 100원의 생산비를 낮출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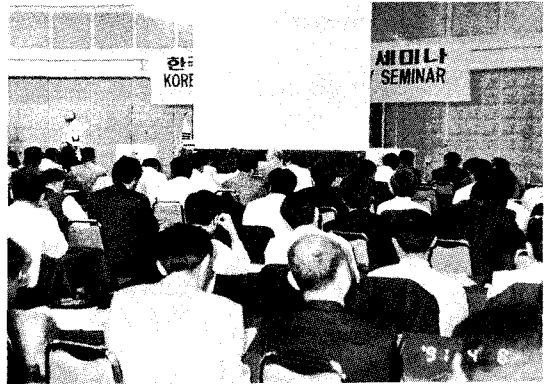
토론시간에는 김종설 사장이 “향후 양계산업은 계열화사업 중심으로 주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열주체간 강력한 협의체를 조직하여 생산조절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용길 사장은 “생산자 주도 계열화 사업은 스스로 판단에 의해 참여했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의욕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단 생산자 단체는 자본력이 약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금이 필요할 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생산자 스스로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하며 또 생산자들의 힘으로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학계 등에 요청하였다.

## 한국·네덜란드 양계기술 세미나 개최 네덜란드 양계관련 시설업체 참여

본회와 네덜란드 농림수산부는 지난 4월8일 조선히에서 양계기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네덜란드 7개 양계관련 시설업체가 참가하여 제품을 소개하였으며, 3백여명의 양계인들이 참석,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신홍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인력난과 계분처리 문제로 시설자동화에 관심이 높으며, 일부



농장에서는 최신식 시설을 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짧은 기간에 진행되고 있어 적합한 기종선택에 어려움이 있다. 네덜란드의 자동화시설에 대한 풍부한 경험은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해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케이트라스 박사가 “네덜란드 양계산업 기술발전”에 대한 발표에 이어, 팜테크사 반테어비어 사장이 “계란생산의 신기술”, 판콤포사 크레이머스 부사장이 “계사 환경관리”, 모바사 안센 부장이 “계란선별의 이점”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한편 스톡피엠티, 모바, 홀랜드피드인터내셔널, 홀람인터프러덕트, 하베이, 팜테크, 팜콤포사는 참가자들과 자사제품을 소개하고, 신기술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 국내 식량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전시회 본회 양계산물 전시장 운영

본회는 수입식품 소비를 줄이고 국내 부존자원의 소비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내 식량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전시회”에 양계산물 전시장을 운영키로 하였다.

5월6일부터 9일까지 여의도 63빌딩에서 식생활개선범국민운동본부와 한국방송공사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국내 식량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및 지역특산물 생산업체와 단체, 농수축산물 가공

식품업체와 단체가 참가하게 된다.

본회에서는 우수양계산물 전시와 염가판매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양계산물의 우수성과 제품을 홍보하게 된다. 양계산물 전시장에 전시하게 될 업체는 친호인티그레이션, 동부축산, 계림축산 등 3개 업체이다.

###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계란거래 재판문제 업계 공동대처키로



4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최준구)가 지난 1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4월4일 가격현실화를 위해 계란기준가격을 낮추었으나 상인들이 서울로 전북지역에서 싼 계란을 들여와 시장을 흐트려 실제 현실화에 실패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5월 월례회에는 4월에 거래한 계산서를 수집하여 상인들이 담합하고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로 하였다.

법정까지 비화된 생산자와 상인간의 계란대금 문제의 재판에 대해 이는 생산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양계업계 전체의 일로서 양계인 모두가 힘을 합쳐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5월 월례회는 5월10일 오후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끝난 후 개최하기로 하였다.

### 하노버 국제양계산업전시회 시찰단 모집 네덜란드 선진양계장 견학도 겸해

본회는 하노버 국제양계산업전시회 및 네덜란드 선진양계산업 시찰단을 모집하고 있다.

독일 하노버에서 오는 6월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될 전시회와 채란계, 육계농장 등을 시찰할 이번 시찰단 모집은 6월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20명내외에서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으로 여행기간은 6월26일부터 7월4일까지 8박9일간이며, 여행비용은 194만원이다.

여행일정은 다음과 같다.

월 일	지 역	교통편	일 정
6. 26(수)	서울/파리	KE901/24011810	김포공항출발, 파리로 착후 석식 호텔숙박
27(목)	파 리	전용버스	파리시내관광
28(금)	파리/하노버	전용버스	전시회참관
29(토)	하 노 버	전용버스	전시회 참관
30(일)	하노버/ 암스테르담	항공편, 전용버스	육계농장 방문
7. 1(월)	암스테르담	전용버스	채란농장 방문
2(화)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항공편, 전용버스	오전 프랑크푸르트 시내 관광
3(수)	프랑크푸르트	KE906/1410	프랑크푸르트 출발
4(목)	서 울	1040	김포공항 도착

### 계란 유해내용 게재 현대모터에 시정요구 해명과 우수성 내용 게재

본회는 현대자동차(주)가 발행한 월간 현대모터 2월호에 계란이 유해한 식품으로 오인케 하는 내용이 게재되어 이를 강력히 항의, 4월호에 본회가 제공한 우수성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였다.

현대모터 생활의 지혜라는 란을 통해 밥에 날계란을 비벼 먹는 것은 소화를 어렵게 하고, 계란을 좋아하는 사람은 주근깨와 주름살이 많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재되었다. 그러나 현대모터는 본회의 항의와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4월호에 계란은 술꾼의 지방간을 막아준다는 제목으로 2면에 걸쳐 계란에 대한 정확하고 유익한 내용을 게재하였다.

### 제6회 임직원 수련 및 단합대회 6월5일~6일, 전남 담양 성암야영장에서

본회는 제6회 임직원 수련 및 단합대회를 오는 6월5일과 6일 전라남도 담양군 성암야영장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하였다.

임직원 유대를 공고히 하여 협회와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양계인이 본회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금년 수련대회는 전남지부가 주관하기

로 하였다.

본회 회장단, 임원, 고문·자문위원, 직원 및 지부, 본회 소속 회원들이 참가하게 되며, 소요경비는 회장단에서 부담기로 하였다.

이번 수련대회는 업계정보교환, 만찬회 및 오락회, 등산대회, 관광 등의 일정으로 진행하게 된다.

### 감별사자격시험 갑종 90명, 고등 1명 응시 6월14일로 연기

91년 제1차 초생추 감별사 자격시험에 갑종갑별사 90명, 고등감별사에 1명이 응시하였다.

이번 자격시험은 오는 6월 14일 민경두병아리감별학원에서 개최한다.

## '91 계군혈청검사 실시

본회는 '91년 사업계획에 의거, 계군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혈청검사를 시행중인 농장은 다음과 같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장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기 바란다.

(1991. 4.31 현재)

농 장 명	성 명	농 장 명	성 명
고창양계	신홍중	홍일중계장	안승식
신진농원	손종현	제일중계장	김동우
강남중계장	한재권	한협축산	박준영
풍전중계장	남광풍	우화중계장	김교석
기성농원	이성희	중원농원	배선채
기림농원	이형성	이천축산	지택호
양주농장	조도형	하림중계장	김홍국